

**‘순종했는데...’**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졌습니까?

홍수가 있을 동안 노아는 방주 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처럼 생각해보지 않는데, 아마도 그가 편히 깊은 잠을 자지는 못했을 것 같다. 그는 24시간 내내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배설물들을 치웠을 것이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매일 40킬로그램의 배설물을 배출한다고 한다. 방주에는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르고 몹시 지저분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매우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과정이 더 어려워진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인생을 복잡해질 것이다. 그러나 죄와는 다르게, 마땅히 복잡해져야 하는 방식으로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아내와의 결혼은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현재 우리 부부에게는 파커, 서머, 조시아라는 이름의 복잡한 세 존재가 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복잡한 존재가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간에 나는 확실히 예견할 수 있다. 당신이 그 비전을 이루는 데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리라는 것을, 훨씬 더 어려우리라는 것을 말이다. 노아를 보라. 그는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어준다. 10년간 하나님이 부여하신 열정으로 인내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지는가? 그 10년의 12배나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를 생각해보라. 그가 120년 동안 묵묵히 망치질을 계속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땀 흘리는 과정도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120년 동안 계속 망치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 우리는 1년 동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반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 나는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매일 한 걸음씩 꾸준히 걷는 사람들을 더 존경한다.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얼마나 빨리 그곳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멀리까지 가느냐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것은 바울이 했던 대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마크 베테슨의 “올인” 중에서-



창립 1974년 11월 3일

주보 제 44권 9호 2018년 3월 4일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사회: 박태열 목사

**경배와 찬양 (Praise)**

\* 시작기도 (Opening Prayer)

다같이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이우인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s)

사회자

봉헌 (Offering) 71장 (새찬50장)

다같이

\* 봉헌송 (Offering Hymn) 1장

다같이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사회자

성경봉독 (Scripture) 레위기 25:10

다같이

성가대 찬양 (Choir Anthem)

예향찬양대

설교 (Sermon)

박태열 목사

회복,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첫번째: 회복

성찬예식 (Holy Communion)

파송찬양 (Closing Hymn) 우리 주의 성령이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박태열 목사

**[예배안내]**

주일대예배 / 11am

주일학교 / 11am

중고등부예배 / 11am

EM Worship / 1:15pm

**[주중예배/모임]**

새벽예배 / 5:30am(화-토)

Acts29 기도 / 6am(주일)

수요예배 / 8pm

속회 / 매달 1회 셋째주

성인성경공부 / 1pm(매달 첫째, 셋째주일)

한국학교 / 3pm-6pm(토)

**[다음주일 대표기도]**

최종인 장로

## 교회 / 교우 소식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Youth 여름 단기선교를 위한 잔돈모금**을 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차안에, 집안에 잔돈들 모금통에 넣어주세요. 잘 쓰겠습니다.
- ◆ **기도스쿨**이 3월 9일(금)부터 7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하셔서 윤경재 성도께 신청하십시오.
- ◆ **가족수련회**가 6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2박 3일간 Maryland에 있는 Sandy Cove Ministries에서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여서 연석윤 집사께 신청하십시오. 강사님으로 빈손채움 재단 이사장이신 **채종욱 선교사**님과 성서유니온 한국협력선교사이신 **박동희 선교사**님 부부가 섬겨주십니다.
- ◆ 오늘 (3월 4일) 오후 1시 30분에 **Brian Roberts** 감리사님과 재정부및 교회 지도들과 만남이 있습니다.
- ◆ 2018년 첫 **속장 인도자 모임**이 3월 11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 ◆ **매일성경 3월 4월호** 나왔습니다. 조동남 권사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 **새가족정착사역 세미나**가 3월 18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모든 제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가 3월 27일(화)부터 3월 31일(토)까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 ◆ **유월절 만찬**이 3월 29일(목) 저녁 8시에 있습니다.

## 부서별 소식

- ◆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로 3월 28일(수) 수요일에 배 없습니다.
- ◆ **성금요일 예배**가 3월 30일(금) 저녁 8시에 있습니다.
- ◆ 사우디의 문열림 선교사님으로 부터, 도미니카의 신현재 선교사님으로 부터 **선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친교실에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 ◆ 친교는 채정원 집사님께서, 제단헌화는 최영숙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 [선교후원]

- ◆ 파송선교사 가정인 문열림 선교사, 주은혜 선교사 (기쁨, 거룩)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문열림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 ◆ 협력선교사 가정인 김희기 선교사, 박경선 선교사 (진서, 진후)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김희기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 월중모임 / 행사

- 3월 4일(일) 2:30pm 감리사님과의 만남
- 3월 9일(금) 7:30pm 기도스쿨 시작
- 3월 11일(일) 2:30pm 속장 인도자 모임
- 3월 18일(일) 4:00pm 새가족정착사역 세미나
- 3월 27일(화)-31일(일) 5:30pm 고난주간특새
- 3월 28일(목) 8:00pm 유월절만찬
- 3월 30일(금) 8:00pm 성금요일예배

### 지난주 일 통계

헌금총액	\$1,826	출석총인원	45
십일조	\$1,050	KM 본예배	38
주정(주일)	\$525	주일학교	7
감사헌금	\$130	EM 예배	
선교헌금	\$105		
주일학교	\$16		
EM	\$		

##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 ◆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 ◆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 ◆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
- ◆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그 다음주일 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 3월 친교 / 헌화

4	채정원집사 / 최영숙권사
11	박민자권사 / 조동남권사
18	서낙선권사 / 연선희집사
25	임순덕권사 / 서낙선권사

### 교회를 섬기시는 이

담임목사:	박태열	
교육협동목사:	박태익	
지휘자:	연석윤	반주자:
시무장로:	최종인	이건형
원로장로:	이우인	
파송선교사:	문열림 주은혜 (기쁨, 거룩)	
협력선교사:	김희기 박경선 (진서, 진후)	